

충주 현대건축의 오늘과 내일

The Present and Future of Chungju's Architecture

박대용 /예가건축
by Park Dae-Yeung

지역성은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교육, 기타 모든 환경의 총합적인 표현이며 특징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성의 개발이란 그 지역 고유의 잠재력(Potential Energy)을 찾아내고 문화의 원천이 되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주는 잠재력 그 지역의 역사적인 잠재력, 지리적인 잠재력, 인적인 구성, 문화적인 특성, 이것이 우리의 지역성에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지역성을 표출시키는 문화로 만들었는지 되돌아 보아야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충주란 도시의 잠재력(Potential Energy)은 무엇인가?

첫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고, 둘째,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장소성을 가진 도시이며 셋째, 오염되지 않은 좋은 자연환경(남한강, 충주호, 호암지, 월악산, 남산, 계명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좋은 수변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넷째, 인구가 작고 도시의 개발지역이 적어 미개발지역이 많으며(새로운 시도로 좋은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 다섯째, 주변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여섯째, 수도권 배후 도시 개념으로의 장소성이 있으며, 일곱째, 환경 오염시설이 적다. 여덟째, 인구에 비해 도시 기반시설이 비교적 풍부하며, 아홉째, 전통문화의 고장이다(우륵의 가야금 연주, 전통음악의 계승 및 택견의 본고장).

이러한 지역 고유의 잠재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문화화되어 우리의 지역성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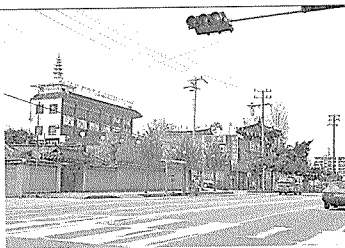
이다. 충주의 건축환경은 이러한 좋은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인구 15만의 도시가 이제 개발의 기지개를 펴면서 개발되고 있지만 지역성을 살린 뚜렷한 방향 없이 대도시의 10여년전 번두리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듯한 모습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징 없는 아파트군의 모습, 개성없는 주택단지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충주지역의 자연환경은 너무나 좋은 곳이다. 작은 도시지역 주변의 구릉지에 펼쳐진 과수원 그리고 넓은 들녘, 에워싼 산들... 충주댐을 넘어가는 목벌 마즈막재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와 무계획적인 주택군들로 우리의 도시 곳곳을 표정없고 개성없는 다른 도시의 모습을 서서히 닮아가게 하고 있다.

필자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충주에 개설하게 된 동기도 이 지역의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로의 비전을 보고 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도시는 아름다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나 자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부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충주는 도시의 규모가 작으므로 시내 구도심의 건축물은 3층 정도의 낮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신축한 건물은 5~6층 정도의 규모로 건축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내세울만한 뚜렷한 작품이 없다. 시내의 몇 되지 않는 대형건물은 외부 건축가가 설계하였으며 지역성을 표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충주시청사는 인구 30만 충주시의 발전을 대비한 규모로 지어졌으나 충주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표출하는 언어로 계획되지 못하고 위압적이면서도 전형적인 관청의 모습으로 시민 앞에 군림하고 있다.

충주시내의 허파라 할 수 있는 호암공원 지역에 건축되는 택견수련원, 우륵당은 전통건축양식의 직설적인 채택을 하였는데 직설적인 채택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여 국적 없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공원정상 부분에 청소년 수련원의 큰 매스 건물이 앉혀져 자연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설계경기를 통하여 채택된 작품들이 이 지역의 장소성과 자연과의 조화와 지역성을 표출하지 못한 것은 이 지역 모두의 책임이며 이제는 건축행정인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지역성을 표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충주시내에 있는 사찰



충주 차 없는 거리



충주 KBS와 지현천위 상가

하겠다.

소규모의 근생시설이나 주택은 대부분이 소위
집장사라 하는 업자들이 시공을 주도하며 설계에까지 깊이 관
여하여 건축 문화와는 상관없는 조악한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중건축물(소규모 건축물)이 우리 건축환
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가 체험하는 도시건축의 환경
이 되므로 시민의 건축의식 향상이 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위
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은 시대의 문
화 의식의 반영물이므로 지금 현재의 수준에 맞는 건축물을 건
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단정하여야 하는지... 우리
건축인은 시민의 건축의식 향상을 위하여 설득과 교육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민 건축의식 향상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겠다.

지역성을 고려한 전원 도시형의 주택단지 조성
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연과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모습으로 계획되지 못하고 조악
한 건축언어로 획일화된 모습으로 건축되어 안타깝다. 건축문
화의 수준과 인식의 부족, 경제력의 부족 등 복합적인 결과로 생
각된다.

지역성을 고려한 작품으로 좋은 자연환경에 조
화될 수 있는 교회건축의 작품이 지역 건축인에 의하여 다수 시
도되어 지역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작품으로 엄정교회, 안림교회, 금가교회, 달천교회(이상 예가건
축 박대용 설계) 삼탄교회(토건축 이용우 설계)가 있다.

충주의 건축문화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충주시 주관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제도가 97년도부터 시
행되었다. 수상작으로 우수상에 주택(건우건축 최영배), 장려상
에 파라다이스 웨딩홀(건축동인 정세영), 엄정교회(예가건축 박
대용)가 선정되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한 충주시에 감사한다.
하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여 수상자에게 부상은 커녕 건축
물에 부착할 동판하나 제공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
어버렸다. 또한 현장답사와 설계자의 작품설명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한 점 또한 아쉽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건축문화 의
식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된다. 적극적인 행정관청의 후원과
홍보와 시민과 건축인의 참여가 있어야겠다.

충주 지역의 지역성과 도시건축문화의 정체성

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우리 지역의 잠재력(Potential Energy) 인
식을 통한 지역성의 발견 및 표출과 개발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
겠다.

② 지역성을 살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
시계획적인 측면이 먼저 배려되어야겠다. 첫째로 구도심과 신
도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둘째로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가로계획 및 가로부근의 건축계획, 도심의 차 없는 거리
의 확대 및 주차계획, 자전거 도로의 확보 등이다.

③ 충주는 개발된 지역보다는 아직 미개발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다. 충주 전체의 권역별 미관지구의 지
정 및 심의방향을 수립하여 백년대계의 충주발전을 위하여 제
안하여 본다. 수변 미관지구(강과 호수부근), 상업 미관지구, 일
반주거 미관지구, 도시부근 전원 미관지구 이렇게 권역별로 나
누어 그 지역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하면 아름다운 도시건축
환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기존의 우리의 도시 건축행정의 발상과는 아주 엉뚱한 발상이
지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 또한
새롭게 거듭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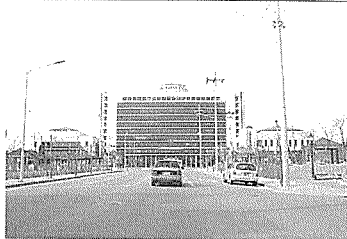
④ 수변공간의 개발: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친
화적인 계획으로 수변지역을 개발하면 우리의 지역성을 표출
하는 좋은 공간이 탄생되리라 생각된다.

⑤ 충주의 도시 성격을 파악한 적합한 도시계
획의 수립: (예: 국토 중심의 도시 - 물류의 중심지, 수도권
의 배후도시 개념 - 전원도시, 관광도시 등등)

첫째, 구릉지 과수원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
지 않고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계획 및 주거계획, 둘째,
자연녹지에 전원형 주거단지의 조성, 업무단지, 연구단지 등의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의 조성(건폐율 20% 적용).

시행방법으로 지역 형편을 잘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도시발전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도시 계획가와 협력하
여 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축의식 향상과 건축인의
지역성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충주시청사



충주 중앙공원과 충주박물관



충주 근민생활시설